

책임기의 땅 좁히는 거품출판

이중환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출판시장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인물을 저자로 내세우고 대리집필자를 통해 한편의 저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 없는 출판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격식을 차리자면 누가 말하고 누가 썼다고 표기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저서의 내용은 당연히 말한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이야기 소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객관적으로도 그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느낄 만큼 사실적이어야 하고 가능하면 어투도 같아야 마땅하다.

실제로 이렇게 써어진 책들은 이런 원칙들을 지키고 있다. 최근 번역된 저서로 안소니 퀸의 자서전이 그 예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출판계를 휩쓸고 있는 많은 인물들의 저서는 이 원칙들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여기에 그 목록을 실명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저자의 이름만으로 간행되면서 누가 읽어도 저자의 이야기이기에 어울리지 않는 온갖 생각들이 뒤범벅으로 들어 있는 책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저자 나이에 어색하기 짝이 없는 문투까지 있다. 아마도 대필자가 매우 젊었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의 영역과 관계 없는 주제를 너무 많이 말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대단치 않은 지식을 이것저것 주워 모아 한편 분량으로 만들려면 하긴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나는 이 사례들을 매우 잘못된 출판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연히 부실출판물

좋은 책은 두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읽기 그 자체에 감명을 주어 읽기욕구를 증대시켜 주는 것, 또 하나는 언제나 다음에 읽을 책을 안내한다는 것이다.

이다.

출판편집자는 저자를 만들고 저자를 키우며 저자를 성공시킨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때 출판편집자가 하는 일은 대필자를 찾아 이름을 붙이고 광고를 잘해서 베스트셀러 한편을 성공시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저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며 단지 저자의 이야기가 어떤 형식의 글로 어떤 시기에 성공할 수 있는가를 판정하고 이 일정을 바로잡아 원고가 완성되도록 처음과 끝의 과정을 정리해주는 것이 우수한 출판편집자의 역할이다.

우리는 이런 출판편집자와 출판물을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는 출판물 역시 많지 않다. 그리고 요즘처럼 출판물인지 그저 예쁘게 포장한 인쇄물 전단인지 모를 출판의 거품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 거품들은 그러나 곧 식상한다는 것도 아는 게 좋다. 이미 그 징조가 일부는 드러

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를 감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만그만한 인물들이 모두 한편씩 쓰고, 또 이어 속편도 쓰고 해서 현재 2백여 종쯤 모인 것 같은데 성공률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 덩어리도 한번 흐르면 멈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함량 부족한 책들은 독자도 함량 부족한 독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독서 그 자체를 재미없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좋은 책은 두가지의 분명한 속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읽기 그 자체에 감명을 줌으로써 읽기의 욕구를 증대시켜 준다 것이고, 또 하나는 언제나 다음에 읽을 책을 안내해 준다는 것이다. 정말 좋은 책은 책 한편을 읽고 수십권의 읽을 책을 찾아내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책들이 모여 독서시장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거품과 같은 책들은 자신의 한권만이 실패할 뿐 아니라 다른 책들에게까지 손상을 줄 수 있다.

멀티미디어화 상황에서 책임기의 땅은 점점 더 좁아져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지금 TV프로그램이 잠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베스트셀러에 도전하려는 책 덩어리마저 잠담화하고 있다.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TV에 싫증을 내고 떨어져나가고 있듯이 출판에서도 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좁아지는 땅을 더 가속적으로 좁아지게 할 것이다. ❖

출판저널

통권 제201호/1996년 10월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연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김지욱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팩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채용: 1)이력서
2)자기소개서
3)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 Plus
21세기 퍼블리싱
a publishing Co.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52-6호 2층
TEL (02)722-1273/4
FAX (02)738-8462
KPO BOX 1132, SEOUL, KOREA

다국어맥 편집서비스

옥편, 다국어사전, 백지관련 서적



한글판 Quark XPress에서 작업한 화일을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기타 다국어로 4도분판 출력이 가능한 Multi-Language One Step System 탄생— 한글·영어·중국어·일어·러시아어·스페인어 등을 한글판 Quark XPress 1개 화일내에서 작업하여 분판출력할 수 있는 MLOS System은 시간, 경제적인 측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외국어 인쇄매체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을 100퍼센트 만족시킬 것입니다.

멀티피아 T.267-5269 F.278-6441
중구인현2가192-30신성B/D405

— 출판저널 합본호 판매안내 —

- 합본1호(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날권31~40호) 5,000원(판매)
- 합본5호(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7호(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8호(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9호(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10호(날권91~100호) 10,000원(판매)

* 구독의 불편·개념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서신등을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료는 합본제작비로 인해 수취인 부담관계로 직접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